

# OIE ad hoc 그룹 회의를 다녀와서



**오윤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질병과 수의연구사  
 yoonih@korea.kr

OIE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상시로 소집해서 운영되는 ad hoc 그룹이 있다.

작년 8월, 기회가 닿아 광견병 위생규약 개정 관련 ad hoc 그룹 회의에 초청이 되어 처음 OIE를 방문하게 되었다.

광견병 관련 ad hoc은 작년 1월 1차 회의가 열리고, 8월 2차, 올 4월 3차 회의가 열렸다. 이중 1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2, 3차 회의에 전문가로 초청이 되어 참석하였다.

첫번째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기에 보고서를 통해서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회의 참석 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자료는 1차회의 결과보고서, 임시의제, 교역증명서모델, 과학위원회 의견, 지난 총회로부터의 생물학 기준위원회 보고서 요약, 광견병 매뉴얼 챕터, 육상동물 위생규약 광견병 챕터, 유기견 통제 관련 챕터 등 이었다.

회의의 공식 일정은 3일로 되어있었다.

회의 당일 9시 30분까지 OIE 본부로 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아 들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회의 전날, 파리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 8시가 넘는 시각이었고, 주변 지리도 잘 모르는 데다가 혼자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기 어색해서 그냥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한 기억이 난다.

다음날 아침, 반쯤은 설레임에, 반쯤은 어색함을 안고 지도를 되짚어 OIE 본부로 향했다.

OIE 깃발을 확인하고, 커다란 검은 문을 마주하니, 어색함만 가득. 다행히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 문을 어찌 열어야 하나 고민 없이 OIE 본부에 들어섰다.



회의장 모습

그렇게 처음으로 받을 디딘 OIE 본부 내부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서늘한 그런 공간이었다.

리셉션 옆쪽에 자리한 회의장에는 중앙에 커다란 테이블을 두고 빙 둘러 의자가 놓여있고, 앞쪽으로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본 회의는, ad hoc 그룹 5명(영국 AHVLA 소속 Tony Fooks 박사, 인도 WHO 지역부 소속 Gyanendra Gongal 박사, 레소토공화국 Marosi Molomo 박사, 브라질 PAHO 소속 Fernando Leanes 박사, 나)과 야생동물 작업반 위원 중 한명(미국 조지아 대학 John Fischer 교수)이 자문으로, 그리고 ad hoc 그룹 회의를 소집한 과학위원회 위원장(남아프리카공화국의 Gideon Bruckner 박사)이 함께 하였다. 또한 OIE 본부에서는 과학기술부국장(Kazuaki Miyagishima 박사) 및 직원(Lea Knopf 박사, Alessandro Ripani 박사)이 함께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의 시작은 과학기술부국장인 Miyagishima 박사가 그 배경 및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FAO, WHO와 함께 OIE 내에서 광견병 박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위생규약의 개정이 개로 매개되는 광견병을 근절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국제교역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광견병의 전파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의장(Chairman)과 보고자(Rapporteur)를 선출하였는데, 의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영국의 Tony Fooks 박사가 계속해서 맡아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전체 회의의 보고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레소토공화국의 Marosi Molomo 박사가 여자들이 맡아서 함께 해보자는 의견을 내며 나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처음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자로 임명이 되어 미진한 영어 실력으로 보고서를 쓰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난다.

의장인 Tony Fooks 박사는 OIE의 위생규약이 전 세계 회원국들의 위생조건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모든 규약의 개정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위생규약 내 광견병 챗터, 유기견 관련 챗터, 증명서 모델 등 관련 챗터 전반에 손을 봐야 했으므로, 회의는 매우 빠듯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위생규약 중 광견병 관련 챗터는 규약이 만들어지고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약을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 꼭 필

요했다.

지난 회의 결과에 추가된 과학위원회의 의견을 접목시키고, 각 대륙별 상황에 따라 가감되는 자료들이 각국 혹은 각 지역에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하는 형편이었기에, 굉장히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어떨 때는 한 문장을 가지고도 회의가 앞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 서로간의 의견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장을 펼쳤는지 가늠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고, 이런 회의일수록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한번은 한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의장이 나서서 한마디 했다. “지금 테스트스



OIE 정원, 바비큐 파티

테론이 너무 분출되고 있으니(남자들의 의견만 계속 부딪히고 있었음), 숙녀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봅시다.” 라고, 이에 Molomo 박사와 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에 따른 논리를 제공하며 다음 안건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공식 회의 일정 중 한번은 OIE에서 저녁을 사는데, 첫날 저녁을 OIE에서 제공하는 저녁으로 먹고, 둘째날은 운 좋게도 OIE 정원에서 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되어 저녁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가지 배웠던 것은, 영국 사람들은 오전 오후 티타임을 정확히 지켜, 휴식을 취하며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 광견병 ad hoc 그룹은 나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의장이 영국사람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위생규약 및 관련 챗터를 모두 교정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최소화 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다. 모두들 사명감이 투철하고, 일을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일치해서인지 심지어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모두 마치자고 할 정도였다.

둘째날은 회의를 마치고 바비큐 파티가 있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이 남았다. 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회의 내용을 워드에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영어실력은 출중치 않으나, 회의 중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선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기억하기 좋을 거란 생각에 시간을 줄이고자 초안을 작성해 놓자는 생각이었다.

식사후 호텔에 돌아와서도, 시차가 맞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서도 보고서 내용을 가다듬었던 기억이 있다.

셋째날은 모든 ad hoc 멤버가 둘러앉아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내가 작성한 초안은 말 그대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인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서를 다듬었다.

수려하지도 않은 영어로 보고서를 써 놓았는데, 얼마나 민망하던지.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을, 그 순간 얼마나 후회를 하였던가!

하지만 후회는 순간뿐, 그 이후로도 살아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다지 영어공부에 매진하지는 않고 있다. 후회는 인성(human nature)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을 뿐!

셋째날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완성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아홉시에 출근하여 티타임, 점심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3시까지 진행하여 회의를 마치고 해산을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이 그날 저녁 9시였고, 택시는 5시에 예약을 한 상태였으므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OIE 본부 가까이 있는 상제리제에 잠깐 나가보았다.

OIE 본부가 개선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개선문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렸다. 시간이라도 때워 볼까 싶어서 나간 상제리제 거리에서, 갑자기 점심도 못먹고 차한잔도 못먹었다는 사실이 생각나 카페서 샌드위치와 커피 한잔을 마시고 그냥 호텔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그렇게 처음 참석한 ad hoc 회의는 바쁜 일정으로 마감되었다.

올 4월 다시금 광견병에 관한 ad hoc 그룹 회의가 소집이 되었다.



# OIE ad hoc



모두들 너무 열정적으로 광견병 챗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개정안을 내놓은 탓일까!

본래 위생규약 내 광견병 챗터는 3쪽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지난 2차 회의에서 삭제할 부분과 첨가할 부분을 합쳐 5쪽짜리 교정본을 만들었는데, 회원국들의 의견이 첨부되어 온 것이 무려 30쪽을 육박했다.

현재 위생규약에는 광견병 청정국과 상재국 두가지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개로 매개되는 광견병 청정국’이라는 조항을 첨가함으로써, 현재 광견병을 매개하는 동물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개 광견병 근절을 유도하자는 의미였는데, 대부분의 광견병 청정국들(유럽연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한가지, 지난번 개정본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우리 ad hoc 그룹 보고서에 명시하였으나, 과학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보고서를 송부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ad hoc 그룹의 보고서와 위생규약 개정본이 동시에 송부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번째 회의에는 ad hoc 멤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의장인 영국의 Tony Fooks 박사와 나를 제외하고는 세명이 모두 변경되었는데, 캐나다 CFIA의 Christine Fehlner-Gardiner 박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대학의 Louis Nel 교수, 중국 창춘수의연구소의 Changchun Tu 박사였다. 과학위원회 의장 및 야생동물 전문가는 변함없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 파견을 나가 계시는 김용주 박사님도 함께하였다.

이번 회의는 다행히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캐나다의 Christine Fehlner-Gardiner 박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Louis Nel 교수가 보고자로 임명이 되었다.

전체적인 회원국 의견들은 지난해 우리가 작성한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세번째 회의에서는, 2차회의에서 너무 앞서 나갔던 부분을 되돌아와서 기존의 규약과 중간쯤에서 맞추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위생규약의 개정 목적은 광견병의 국가간 전파 및 사람 전파에 대한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재 정의를 내려 공중위생에 초점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위생규약은 가축(산업동물)의 교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위생이나 사람에의 전파 위험성 등에도 수의 분야에서

관심을 표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는 OIE/FAO/WHO가 공동으로 수립한 [One Health] concept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추가된 ‘개로 매개되는 광견병 청정국 (dog-to-dog transmission free)’이라는 조항은 ‘개 광견병 청정국(free from dog rabies)’으로 변경되었다. 본 조항의 추가는 세계적인 개 광견병 발생에 대한 OIE의 우려와, 그로 인한 사람에의 노출과 사망률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는 것으로, 개 광견병을 강조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인해 개로 매개되는 광견병 박멸을 촉진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독려하고자 함이다.

이번 회의 역시 3일간 짧은 시간내에 모든 회원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시간이 촉박했다.

OIE에서 둘째날 저녁을 초대했는데,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교정된 자료를 나누어 주며 다음날 아침까지 검토해 오라고 숙제가 주어지기도 했다.

이번 4월 회의는 작년 8월 회의보다는 쉬는 시간도 좀 있었고, 점심도 거르지 않게 안배해 주었다.

확실히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께서 보고자로 활동을 하셔서 인지, 보고서 작성 작업도 지난해에 비해 매우 매끄럽게 흘러갔다. 시간도 훨씬 적게 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중국분이 사진 찍는걸 좋아하셔서 인지, 회의 마치고 해산하기 바빴던 지난해과는 달리 단체사진도 한장 남았다.

심지어 우리 그룹의 단체사진이 5월 총회에서 과학위원회 발표에도 쓰이고, 9월 광견병 학회에서도 대표사진으로 쓰였다. 하필 저 덩치를 가지고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으니...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이었을까? 세번째 회의 결과 보고를 받은 과학위원회는 우리의 성과에 매우 만족을 했다는 소식이다.

개정된 광견병 및 관련 챗터에 대한 안건은 내년 2012년 총회에 상정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우리의 노고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Fingers & toes crossed!!